

# 생활안전 길라잡이Ⅳ

Life Safety Guide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

#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 우리집 안전점검 리스트



분야	점검항목	점검결과 (O, X)
건물	건물에서 수시로 "터덕"소리가 들리는 등 균열현상은 없는가?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있는가?	
	옥상에 과하중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는 않은가?	
	창문의 여닫힘 상태가 좋은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 등 위험한 상태는 없는가?	
	시설물 주변이나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는 좋은가?	
	콘크리트 구조에 균열,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가?	
가스	가스렌지 밸브는 완전히 잠겨있는가?	
	월 1회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하는가?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 가스통을 보관하는가?	
	가스보일러의 흠·배기구시설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경보기 등은 정상 작동하는가?	
	가스밸브 및 배관은 녹슬지 않았는가?	
전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상 작동 시험버튼을 눌러 확인하는가?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가?	

# Contents

빠른 출동을 위한 올바른 긴급신고 방법(112,119) p. 05

1.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p. 07

2. 감염병 예방 p. 14

3. 전기사고 예방 p. 17

4. 가스사고 예방 p. 21

5. 선박 사고 예방 p. 24

6. 축제 · 행사장 관람 안전 p. 30





빠른 출동을 위한 올바른 긴급신고 방법(112, 119) 두 가지  
 첫 번째는 <사건사고의 정확한 위치 알리기>  
 두 번째는 <현재상황 말하기>



## | 정확한 위치 알리기 |

112, 119에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주소뿐만이 아니라 현재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됩니다.

### ①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의 위치를 아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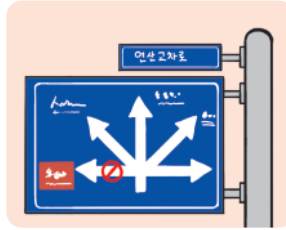
- ▶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동, 호수까지 상세하게  
 예)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2층
- ▶ 대략의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함께  
 예) “여기 현대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예요.”라고 구체적으로

### ②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

- ▶ 도로명 주소 표지판을 확인할 것
- ▶ 주변 큰 빌딩의 빌딩명
- ▶ 가까운 가게의 간판명이나 상호, 전화번호
- ▶ 전봇대에 적힌 관리번호로 위치 확인
- ▶ 공중전화부스에 설치된 전화번호
- ▶ 고속도로의 경우 시점표지판 및 진행방향
- ▶ 스마트폰 위치확인서비스 활용할 것(GPS 또는 WI-FI를 켜놓는 것도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건물번호 확인〉



〈도로의 이정표 확인〉



〈전봇대 번호 알려주기〉



〈주위 가게의 간판명과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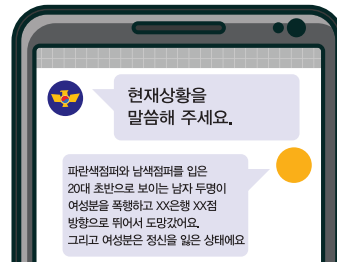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 | 현재상황 말하기 |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경찰(112)의 대응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현재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 ▶ 어떤 사건, 범죄인지를 알려주세요
- ▶ 피해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 ▶ 용의자 정보를 자세히 말해 주세요
- ▶ 현재 도주상황도 중요합니다.



피해상황(범죄의종류) ✓

범인수 ✓

도주방향 ✓

피해자의 상태 ✓

※ 허위신고는 긴급출동시간을 지연시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 | 1.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



**캠핑장 사고 발생시**

즉시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캠핑장 생활안전

### 텐트, 어디에 쳐야할까?

좋아요!



평평한 곳  
물을 구하기 쉬운 곳  
암벽이나 언덕이  
없는 곳

나빠요!



계곡 근처  
첨탑이나 큰 나무 아래  
전깃줄, 철계단, 식줄 근처



- 텐트는 식수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칩니다.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습니다.
- 해먹 설치 시 땅 바닥에는 만약의 추락을 대비해 두꺼운 돛자리 등을 깔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높은 언덕이나 절벽에 어린 자녀가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숲속에서는 폭죽놀이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삼가도록 합니다.
- 흡연은 반드시 정해진 흡연구역 내에서만 하고 담배꽂초를 버릴 때도 불씨가 없도록 확실하게 끄고 버리도록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캠핑장 내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세요.
- 야영 중(특히, 장마철)에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않습니다.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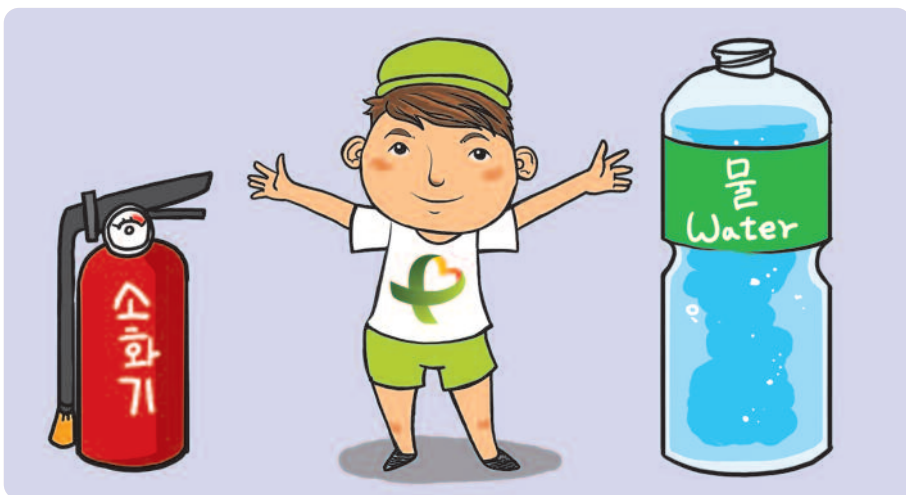


## ② 전기제품 사용할때



-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장판의 사용을 삼가시고, 개인 침낭을 사용합니다.
- 과열을 막기 위해 릴선은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로 사용합니다.
- 자신이 직접 제작·개조한 제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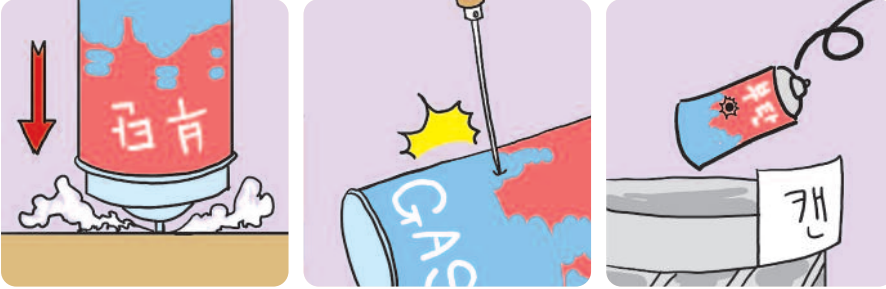
## ③ 난방기구 사용할 때



- 난로를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텐트 내부를 수시로 환기시켜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합니다.
- 취침 시는 난로와 화롯대 등을 끄고 텐트 밖으로 빼놓습니다.
- 휴대용 소화기 구비 및 사용법을 숙지하고, 없을 경우 페트병에 물을 받아 비상시 사용합니다.



#### 4 휴대용 가스제품 사용할 때



- 사용 전에 연료 누출이 있는지 점검하고, 가급적 바깥에서 사용합니다.
- 취침 시 부탄가스통을 제품과 분리해서 가스누출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부탄가스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다 쓴 용기(캔)는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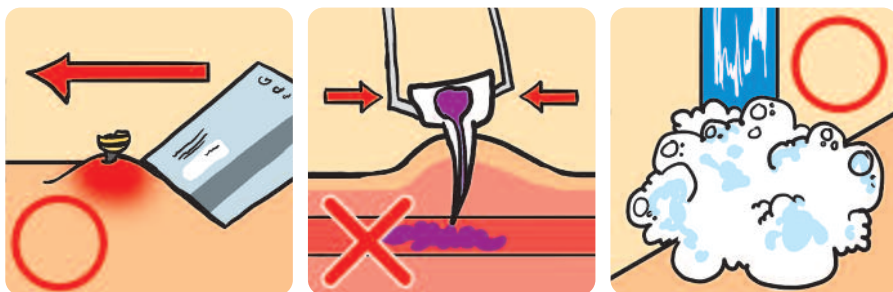


- 용기(캔)를 접속할 때는 완전히 결합이 되게 합니다.
- 사용 중에 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히 연결 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가스용기를 가열하게 되어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산소부족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질식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가스레인지 2개 이상 연결하지 않습니다.
- 알루미늄 호일 사용을 자제합니다.



## | 야외활동 중 응급처치 |

### 1 벌에 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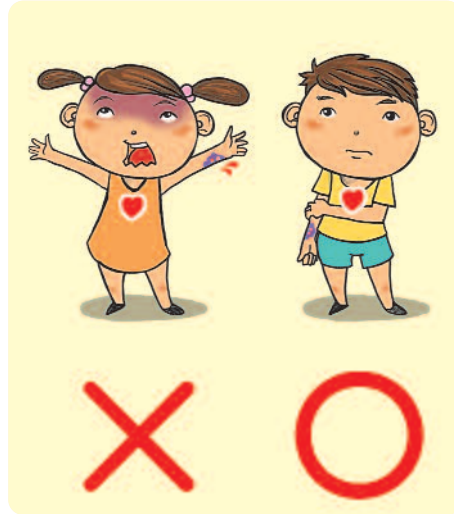
-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합니다.
- 쏘인 부위 벌침이 남아 있으면 바늘이나 칼 등으로 제거,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어서 제거 후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단, 무리하게 제거 금지)
- 피부에 벌침이 남아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합니다. 집게 등으로 제거할 때, 침에 남은 독을 짜서 밀어 넣게 될 수 있습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대줍니다.
-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 ① 흡기 시 그렇거리는 호흡음이 있고 입술이 심하게 부어있는 경우, 기도 폐쇄가 임박함을 의미하므로 즉시 꽉 조이는 옷은 풀고 상체를 들어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
  - ② 만약 토하거나 입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 ③ 구급차 도착 전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2 뱀에 물렸을 경우

-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합니다.
-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민간요법 지양)



- 환자를 안정시키고 물린 팔 또는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킵니다.
- 상처를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비누는 독소를 불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구토가 일어나면 몸을 옆으로 기울여 줍니다.



## ★ 물린 지 15분 이내인 경우 처치방법 ★

- 물린 부위의 10cm 위쪽(심장에 가까운 쪽)을 폭 2cm 이상의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습니다.
- 묶은 후 손가락 하나가 통과하도록 느슨하게 묶어야 하며, 절대로 팍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1시간 이상)에는 진공흡입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독을 빨아낼 수 있습니다. 단! 입에 상처가 있거나 치아가 결손난 사람은 절대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됩니다.

## ★ 절대 해서는 안 될 처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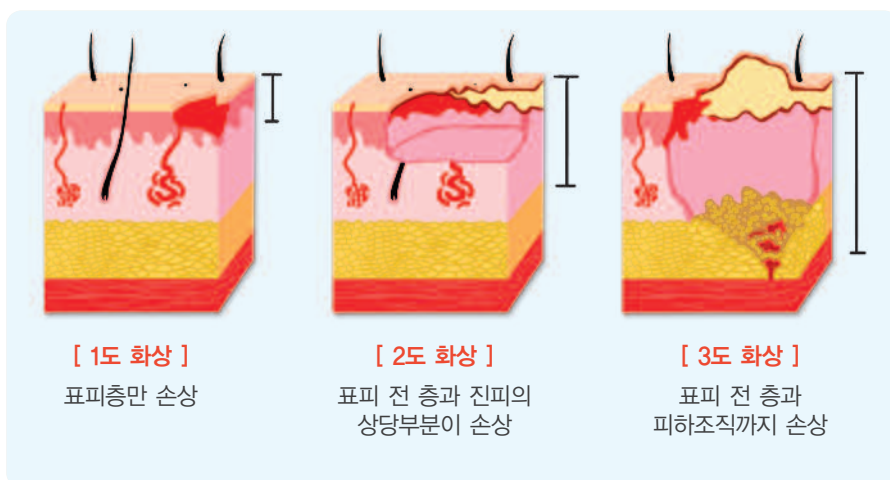
- 상처를 칼로 절개하지 않습니다. 혈관, 신경 등 구조물을 손상할 뿐 아니라, 2차 감염이나 파상풍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 상처에 담뱃재, 된장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
- 뱀을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상처에 얼음을 직접 대지 않습니다. 냉찜질은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상처 부위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화상

#### | 증상 |

- ① 1도 화상 : 피부가 빨개지고 물집이 없는 상태(표피층만 손상)
- ② 2도 화상 : 물집이 생긴 상태(표피 전 층과 진피의 상당부분이 손상)
- ③ 3도 화상 : 피부가 하얗고 손상부위를 눌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진피 전 층과 피하조직까지 손상)



- 화상부위를 신속하게 흐르는 찬물에 적시거나 담급니다.
- 화상 부위에 붙어 있는 옷 등은 제거하지 말고 더러운 물건이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간장, 기름, 된장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하며 화상 부위가 적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냉각시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흐르는 찬물 속에 최소 10분 동안 담금)
- 소독거즈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부위를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물집은 터트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붙어 있는 물질들을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 | 2. 감염병 예방 |



### 감염병 사고 발생시

즉시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 888-3324  
또는 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감염병 예방



- 평소에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습니다.  
특히, 외출 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조리하거나 식사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 등
-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이나 생수를 마십니다.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먹습니다.
- 도마, 칼 등은 식품별 구분하여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피하고, 집안 등 실내는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에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감염병 증상이 나타날 때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해외 여행객은 귀국 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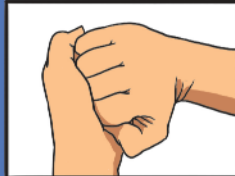
### 《올바른 손씻기》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법국민 손씻기 운동본부 가 추천하는 올바른 손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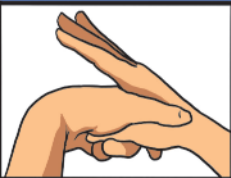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 3. 전기사고 예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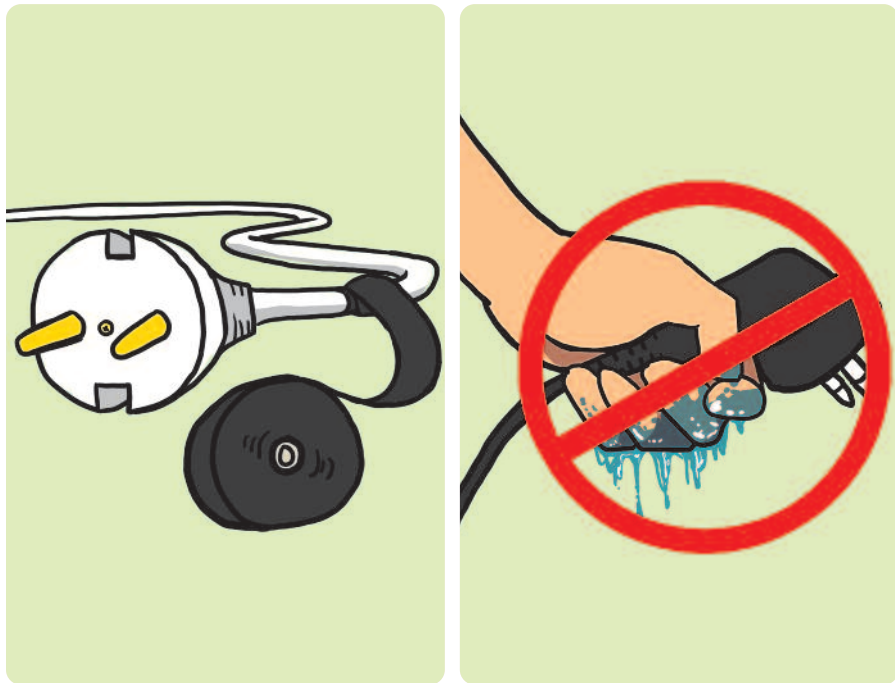
#### 전기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 ☎ 1588-750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시 :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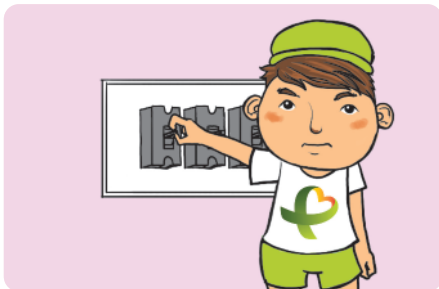
## 1 일반적인 전기사고 예방



-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전류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전원을 차단 후 절연테이프로 노출된 부분을 감아서(테이핑) 사용합니다.
-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합니다.
- 전동기 등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 수동 개폐기(차단기)의 퓨즈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합니다.
- 누전차단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월 정기적으로 테스트합니다.
- 불량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선은 중간에 임의로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기설비 고장 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신고하여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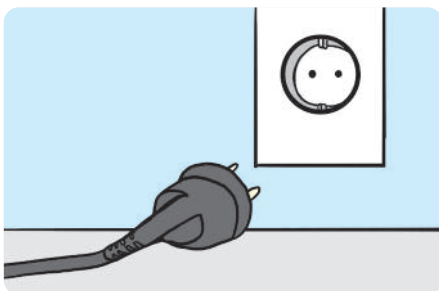


## ② 폭우 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폭우로 인한 주택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여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 이때 발이 물에 잠겨 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차단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야 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전기기 등이 물에 젖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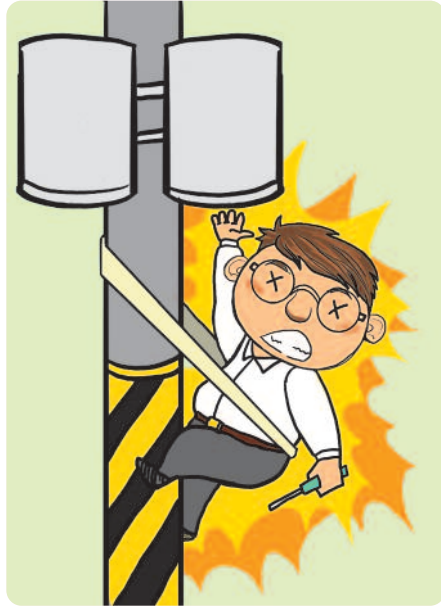
## ③ 정전 발생 시 조치사항



- 정전이 되면 주변을 확인하여 지역일부만 정전인지, 전체적으로 정전인지 확인 후 잠시 기다립니다.
- TV, 전기스토브, 전자레인지 등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 침착하게 양초나 랜턴을 켜고 건전지용 라디오를 켜 후 뉴스나 재해상황 중계방송을 경청합니다.



- 한 집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었는지, 안전기(두꺼비집)가 열렸는지 확인 후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끄거나 빼고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해 봅니다.
- 이때 누전일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며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불량개소를 확인합니다.
- 일부 스위치나 플러그(또는 콘센트)가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나머지 양호한 것은 사용을 합니다.
- 수리를 위해 전기선을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 한전에서는 정전이 되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출동 후 수리하고 있으므로,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 없이 123으로 신고합니다.
- 직접 전기를 고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 Tip!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무료서비스 시행

☎ 1588-7500

★ 무료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 무료서비스 범위 : 주거용설비(주택)에 한하여 실시

○ 서비스 내용 :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 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119) 서비스 업무 시행

☎ 24시간 즉시 출동·응급조치



## | 4. 가스사고 예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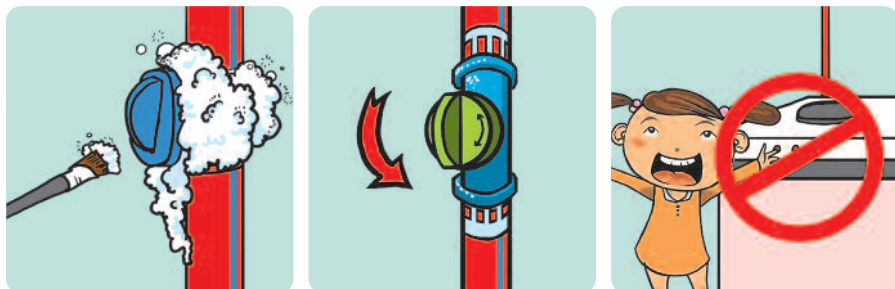
### 가스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 1599-0009



## 1 평소 점검 방법



- 비누나 주방용세제 등으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취침·외출 전에는 반드시 퓨즈콕 및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이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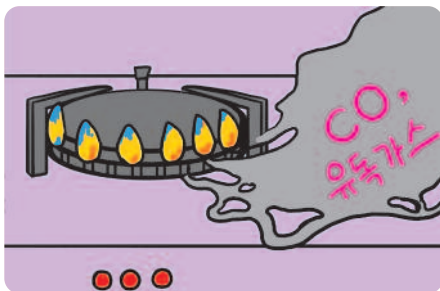
## 2 가스 사용하기 전



-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합니다.
-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는 것입니다.
- 미리 창문을 열어줌으로써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가스레인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 3 가스 사용 중



- 가스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니다.(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가스밸브가 열리면 가스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절합니다. 불완전연소 시 노란 불꽃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그을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 4 가스 사용 후

- 가스 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닫힘’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시계방향으로 조작)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는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 ※ 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공급자 또는 전문 시공자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기!
  - 도시가스 사용자 ⇒ 지역관리소
  - LP가스 사용자 ⇒ LP가스 판매점, 가스전문 시공사
- 가스레인은 자주 이동시키지 마시고 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 ※ 휴대용 가스레인은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득이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에서 정상적으로 연소되는지 여부 확인 및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 | 5. 선박 사고 예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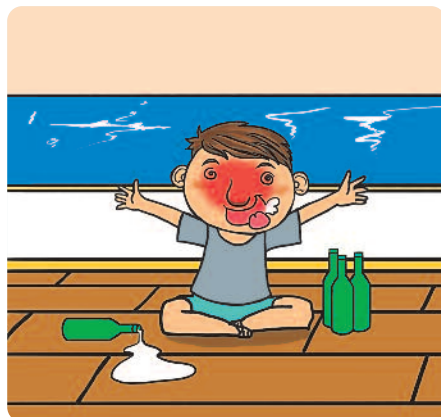


선박사고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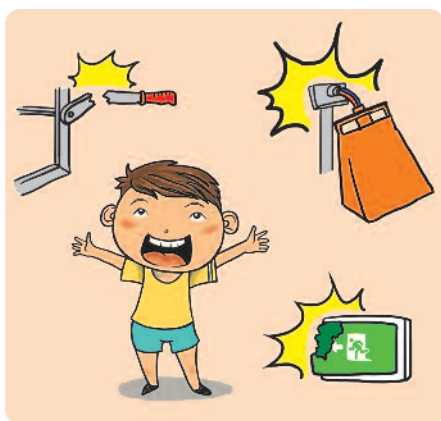
즉시 **119** 또는 **12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선박 이용객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



-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지시, 기타 안전운항이나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선박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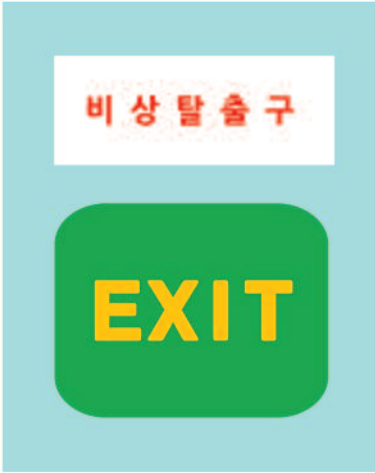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선박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서 규정된 화약, 폭약, 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과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 2 선박사고 대처법

### ● 비상구 표시

Emergency exit sig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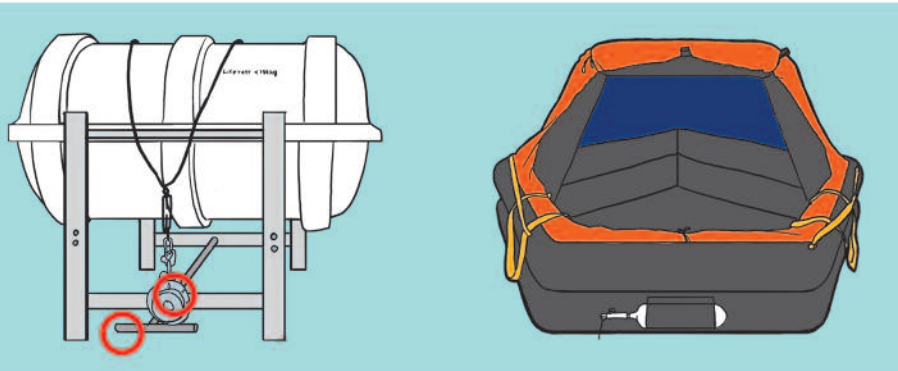
### ● 탈출경로 표시

Direction signs to your muster station



### ● 팽창식 구명뗏목

Inflatable liferaft



#### ※ 팽창전 Before Inflation

수동으로 부양시킬 경우 이탈장치의 단추를 누르거나 레버를 찌르면 탑재대에서 물속으로 떨어져 자동으로 팽창합니다.

#### ※ 팽창후 Inflation

탑승할 때는 가능한 한 직접 뗏목 위로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 구명조끼·구명정 위치 및 배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 선박사고(화재, 좌초, 테러 등)가 발생 시 큰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누릅니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킵시다.
-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이 열리지 않을 때 선내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 선장, 인명구조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습니다.
- 구명조끼! 물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선상에서 입기
  - 침몰하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게 되면 몸이 물 위로 뜨기 때문에 배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으므로 물에 뛰어들기 직전 선상에서 입는 것이 좋습니다.
- 가라앉는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되도록 멀리 뛰자!(배가 기울어져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못 할 경우)
  -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 순간적인 진공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흡입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배와 함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 되도록 멀리 뛰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 신발을 벗고 다리를 편 후,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멀리 뛰어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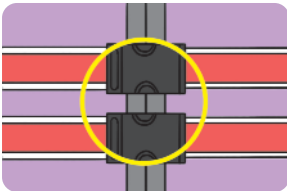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들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합니다.
- 체온저하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 배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니라 체온저하이다.



## 3 구명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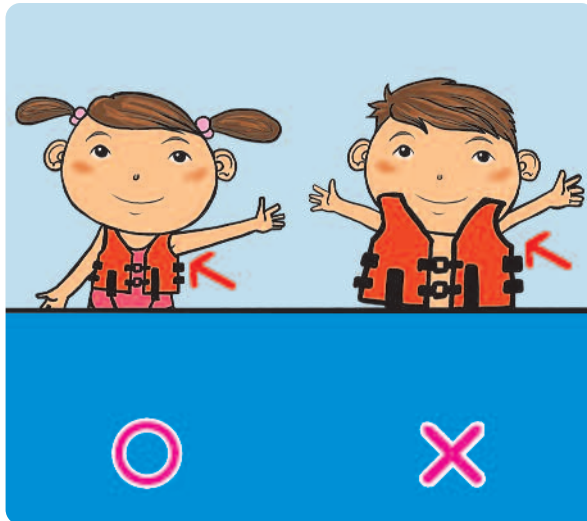
### ● 가슴단추

노란색 원 안에 있는 것이 구명조끼의 안전버클이다.  
보통 2~3개의 버클이 달려있다.



### ● 생명줄

구명조끼 아랫쪽에 길게 늘어선 줄을 양쪽 다리사이에 넣어 사용하는 다리연결 생명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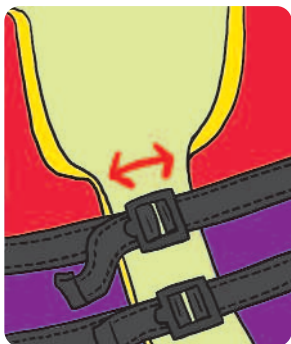
### ● 올바른 착용

좌 - 자신의 몸에 딱 맞음  
우 -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음



## ● 구명동의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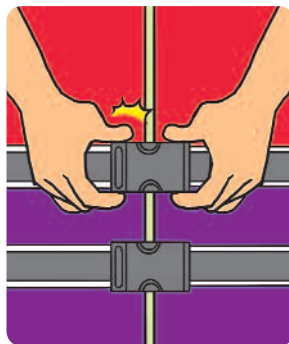
① 자신의 신체사이즈에 맞게 구명동의를 선택한다.



② 가슴조임줄을 풀어준다.



③ 구명동의를 몸에 걸친다.



④ 가슴단추를 채운다.



⑤ 2인 1조로 가슴조임 줄을 당겨준다.



⑥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뻗는다.



⑦ 생명줄을 건다.



⑧ 구명동의 착용 완료



## | 6. 축제 · 행사장 관람 안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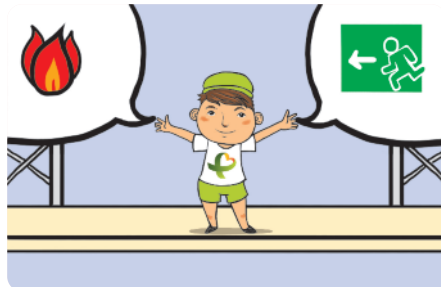


축제 · 행사 사고 발생시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입·퇴장할 때는



- 축제·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걸어서 입장합니다.
- 관람객은 진·출입 때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줄을 서서 이동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입·퇴장합니다.
- 관람객은 축제·행사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장과 퇴장을 하여 공연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축제·행사 주최자 및 시설물 운영자는 관람객에게 축제·행사 시작 전에 위급상황 발생 때 대처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하며 관람객은 이를 숙지하여 위급상황 발생 때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관람할 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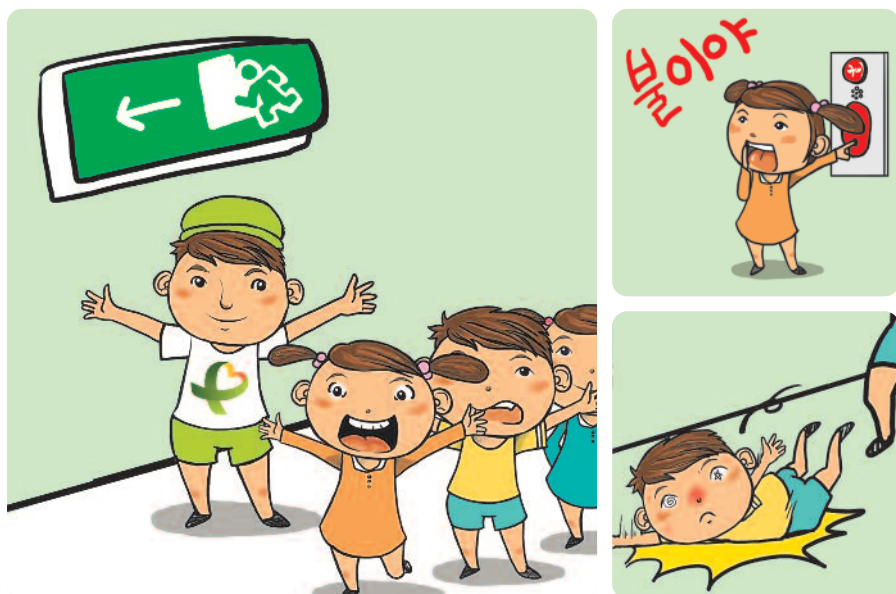


- 축제·행사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축제·행사장 내에서 관람객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난을 쳐서는 안 되며, 특히 어린 아이와 함께 관람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가 요구됩니다.



- 축제 · 행사장 내에서는 행사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을 하여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옆에 있는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비상사태 발생 때는



- 실내 행사장의 경우 갑자기 정전되면 당황하지 말고 안내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 유도등을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 대피 시 119구급대원 등 안전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행사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앞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면 압사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앞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앞사람 먼저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 “생활속 안전위협요소!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http://www.safepeople.go.kr>

### 1 앱 다운로드

- 1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 2 아이폰 ▶ App 스토어

### 2 회원가입

▶ <http://www.safepeople.go.kr>

### 3 주변사람들에게 전파 ▶ SNS,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 4 신고

The screenshot shows the mobile app interface for reporting. At the top, there's a header with the app logo and navigation icons. Below the header, there's a section titled "안전신고" (Safety Report) with tabs for "신고사항 작성" (Write Report Item), "사진/동영상" (Photo/Video), and "신고발생지역" (Report Occurrence Area). The "신고사항 작성" tab is active, showing a form with fields for "신고 발생 지역" (Report Occurrence Area), "내용" (Content), and "휴대전화" (Mobile Phone). The "내용" field has a placeholder text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Please enter content). The "휴대전화" field has a dropdown menu for country codes, with "010" selected.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제출" (Submit) and "닫기" (Close).

- ▶ 앱 실행
- ▶ 안전신고 클릭
- ▶ 신고발생지역 입력
  - 내 위치정보 사용 동의 후 위치찾기
- ▶ 신고내용 입력
- ▶ 본인 휴대전화 입력
- ▶ 제출버튼 클릭

## 생활안전 길라잡이Ⅳ

발 행 부산광역시 재난예방과 (☎ 051-888-2895)

편 집 안전문화운동추진 부산광역시협의회

발행일 2015. 6.

※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도움정보 - 안전 - 생활안전길라잡이

### ▶ 참고

-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안전행정부, 2014.7)
  -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여객선 비상시 생존기술”(한국선급, DVD, 2014.12)
-



시민이 행복한,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